

이데일리 창간 5주년 축하 메시지

이데일리 창간 다섯 돌을 축하드립니다. 임직원과 네티즌 여러분께도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데일리는 국내 최고의 금융·경제 전문 인터넷 언론답게 경제인들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방문자 수가 40만 명에 이를 만큼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세계 11위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자동차·조선·철강·석유 화학 등 우리의 수출 주력산업은 세계 4강 수준에 올라섰고, 반도체와 IT 분야는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실력 있는 기업이 성공하고, 정직한 기업인이 손해 보지 않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맺은 '투명사회협약'은 그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금융 시스템 등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국 수준으로 고쳐 나갈 것입니다.

이데일리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정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우리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거듭 창간 5주년을 축하드리며, 이데일리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